

민선 5기 광주시정



28일 광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선 5기 2년 성과 및 하반기 역점시책 설명회'에 참석한 시민과 공무원들이 강운태 광주시장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 희망 프로젝트 10’ 선정·추진

도심속 산 잇는 산들길 조성
경로당에 전담 주치의 배치

민선 5기 상반기를 마감한 광주시가 향후 2년 동안 시민행복과 지역의 미래경쟁력을 한 차원 끌어올리기 위해 광주 동구 금남로를 '5·18 민주·평화 녹색광장'으로 조성하는 것을 비롯해 '광주 희망 프로젝트 10'을 선정하고 이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 신성장동력=오는 2014년까지 고용률을 1%포인트 올려 전국 대도시 중 중위권으로 도약하고, 민선 5기 하반기 중 일자리 6만 개를 만들기로 했다. 일자리 보태기와 나누기 운동, 신규 사회적 기업 및 마을기업 250개 육성, 윈스톱 창업시스템 구축, 취약계층 맞춤형 일자리 사업 등이 포함됐다.

◇'녹색행복타운 조성'=예술과 효(孝)가 살아숨쉬는 친환경·저탄소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단독주택, 한옥, 연립, 다세대 등 다양한 모델의 주택을 친환경 주택으로 개발하고, 복지관과 문화센터, 메디컬센터 등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올해 하반기 대상지역을 선정하고 공모를 거쳐 2013년 착공할 계획이다.

◇'빛고을 산들길 조성'=무등산 둘레길과 무릎 길에 이어 민선5기 하반기에는 도심의 산과 산을 잇는 둘레

산길이 조성된다. 구간은 광주 북구 삼각산에서 잣고개~금당산~용봉동~어등산~백수산~진곡~비아~삼각산으로 이어지는 도심외곽 순환 81.5km에 이른다. 오는 2013년까지 2단계로 나누어 추진된다.

◇'친환경 도심재생사업 추진'=5개 자치구별로 1~2개소를 선정해 시범적으로 도심재생사업을 추진한다. 도시에 방치된 공가와 폐가를 매입해 주차장과 마을 소공원, 텃밭 등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특히 U대회 선수촌 공사장 중앙에 위치한 주월초등학교를 친환경 건축물로 리모델링, 선수촌 관리본부 및 홍보관으로 활용하게 된다.

◇'광주 희망나눔 봉사재단 설립'=기존 복지제도에서 소외된 사회적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시민참여형 봉사재단이 설립된다. 기금은 시 출연금과 시민·기업의 기부금 및 후원금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경로당 전담주치의제 시행'=광주지역 1000여개 경로당과 내과 또는 가정의학과 의료기관을 1대1로 자체 결연,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전담 주치의가 월 1회 자매결연한 경로당을 방문, 기초건강검진 및 진료상담을 실시한다.

또 안과, 정신과, 신경과, 정형외과 등 전문의료 기관들도 월 1회 진료를 하게 된다.

◇'미디어콘텐츠 타운 조성'=노후화한 송암산단을 첨단 디지털 콘텐츠 관련 시설과 기업이 집약된 미디어콘텐츠산업 거점지로 탈바꿈시키는 사업이다. 오는 2023년까지 총 1761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1구역은 문화기술연구단지, 2구역은 CG 콘텐츠 플라자, 3구역은 영상미디어 콤플렉스 및 콘텐츠 타운으로 조성된다.

◇'세계적 인권선도도시=인권헌장 및 인권지표 실천을 담보할 수 있는 중립적 감시기구인 인권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 국제사회에 통용되는 인권도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교도소 이전부지를 활용해 '민주인권평화센터'를 만드는 계획이다. 5월 사적지를 정비·복원한 '5월길'도 조성한다.

◇'명품 유니버시아드 개최'=2015 광주지역 1000여개 경로당과 내과 또는 가정의학과 의료기관을 1대1로 자체 결연,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전담 주치의가 월 1회 자매결연한 경로당을 방문, 기초건강검진 및 진료상담을 실시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캠코·어등산·2순환도로 해결될까

■후반기 3대 쟁점과 해법

민선 5기가 반쯤 지나지만 광주시정의 미해결 과제도 적지 않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28일 민선 5기 전반기 결산 기자회견에서 캠코 부실투자 논란을 비롯한 현안 사업에 대한 입장과 향후 추진 계획을 밝혔다.

◇'캠코' 부실투자 논란=한·미합작 3D컨버팅 사업과 관련해 광주시가 미국 파트너 업체인 K2AM에 대한 기술력 검증 시험을 또다시 연기함에 따라 사업이 사실상 좌초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앞서 광주시는 투자비 명목으로 650만달러(72억원 상당)를 송금한 뒤에도 사업추진이 불투명해지자 미국 현지에서 K2AM의 3D컨버팅 기술력을 검증하기로 했으며, 1차로 지난 3월 말로 검증시험을 정한데 이

법인 대표이사 김도씨를 배임혐의로 고발하는 한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통보했다.

◇어등산 골프장=골프장 우선 개장을 둘러싸고 광주시와 개발업체간 법정다툼이 시작된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해 강운태 광주시장이 '법대로 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강 시장은 "골프장이 우선 개장되지 못해 지역 건설업체가 어려움을 겪는 것은 가슴이 아프지만 시정의 책임자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대원칙이 있다"며 "그 근본은 협약사이며, 시장으로서 협약서에 충실하게 행정을 운영하고 집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또 "최근 언론을 통해 사업자가 계속 사업을 진행하든지, 사



강운태 광주시장이 28일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민선 5기 전반기를 평가하고 하반기 역점시책을 소개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는 자본을 원상복구하라는 명령을 내렸음에도 이에 불복해 광주시를 상대로 행정심판까지 청구했다"며 "승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광주시는 제2순환도로 1구간에 대한 재정보전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재정을 압박함에 따라 지난해 10월 민자사업자인 광주순환도로투자(주)에 현재 6.93%인 자본을 협약 체결 당시인 29.91%로 원상복구하라는 감독명령을 내렸다.

이는 민자사업자가 주무관청인 시의 동의없이 임의로 자본금을 감자한 뒤 후순위 차입금을 도입하고 주주차입금을 늘리는 방식으로 높은 이자의 자금을 조달하면서 자기자본 전액을 잠식하는 등 적자운영을 심화시켜왔다는 분석 때문이었다.

이에 민자사업자 측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협약서에 자본 구조를 변경할 때 광주시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없다'며 지난해 11월 감독명령을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와 관련, 지난 19일 "사안이 중대해 서면심의로는 부족하다"며 "당사자 의견을 직접 듣고 결정하기 위해 구술심리하기로 했다"고 행정심판 보류 결정을 내렸다. 광주시는 행정심판위원회가 민간사업자의 청구를 기각해 승소할 경우 제2순환도로 인수를 위한 절차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홍형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캠코 - K2AM 기술력 검증 또 연기 ... 좌초 우려
어등산 - 사업추진 지지부진 ... "골프장은 법대로"
2순환도로 - "투기자본에 불쾌 ... 법적 승소 노력"

어 또다시 이달 말까지로 시험을 연기했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이날 "이르면 오는 30일 노회용 문화관광정책실장을 미국 LA 현지로 보내 사업추진 가능 여부를 최종 점검하고 앞으로의 일정을 결정,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K2AM은 3D컨버팅에 관한 원천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가 아니라, 3D컨버팅에 필요한 기술을 가진 여러 회사를 매니지먼트 하고 마케팅하는 업체"라고 설명하고 "아직까지는 애초 계획대로 되지 않고 있지만 지금 사업을 그만두면 시민에게 이로운 것이 없는 만큼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덧붙였다.

광주시는 2D영화를 3D로 변환하는 3D컨버팅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지난해 한미합작투자법인인 캠코를 설립, 미국 측 파트너인 K2AM과 사업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말 감사원이 '미국 업체가 실제 3D변환작업을 해 본 실적이 없고,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해 온 기술이 사실은 다른 회사의 상용 소프트웨어로 드러났다'고 밝히면서 부실투자 논란이 촉발됐다. 감사원은 감사결과에서 미국업체에 송금된 투자금 650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합작투자

업권을 다른 업체에 넘기든지, 아니면 사업자가 손해를 보더라도 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협상안을 제시하든지 하는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고 수차례 밝혔었다"며 "그럼에도 협의에 이르지 못하고 법정까지 오게 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강 시장은 이어 "앞으로 법정에서 충분히 대응함으로써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오는 2015년까지 어등산 일대 273만2775㎡ 부지에 총사업비 3400억원을 투입해 호텔과 콘도, 골프장(27홀), 테니스장, 야외수영장, 빛과 예술센터, 빛의 전망대, 백년 생명탑, 빛의 호수, 식물원 등을 갖춘 종합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그동안 시행사가 수차례 바뀔 때마다 불발된 제거작업이 지연되면서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현재는 골프장만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개발업체가 우선적으로 골프장 개장 허가를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제2순환도로 1구간 재정보조금=민자사업자가 운영하면서 이른바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한 제2순환도로 1구간에 대해 강 시장은 "투기자본이 광주시민을 상대로 부당이득

을 취하고 있다"며 "불쾌하기 이를 데 없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민자사업자를 상대로 수없이 많은 협상시도를 했지만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심지

빛의만평 - 김중두

참 여러가지 보여 주십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찾아가는 법률보호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2012년 7월 나주·영암·무안 지소 개소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농어촌, 무변촌(無辯村) 등 법률보호 취약지역 주민들의 권익보호와 법률복지 증진을 위해 7월 1일부터 나주, 영암, 무안에 공단 지소를 개소합니다. 법률 문제로 고민하십니까? 이제는 가까운 지소에서 법률서비스를 받으세요! 법률구조공단이 여러분 곁으로 가겠습니다.

공단은 전국의 법률보호 취약지역에 이동 법률상담 차량을 운행합니다.

관할	지소명	주소	연락처(전화/팩스)
광주 지부	나주지소	전남 나주시 송월동 1100번지(시청길 22) 나주시청 1층	061) 334-7805~6/334-7807
	영암지소	전남 영암군 영암읍 서남리 11-3(열무정로 14) 2층	061) 473-7806 /473-7807
	목포출장소	전남 무안군 무안읍 성남리 276-1 제비동호(무안로 494-1) 1층	061) 454-7806 /454-7807
	무안지소	* 전남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530 무안군청 제2별관 3층으로 4개월 후 이전	

www.klac.or.kr ● 개 소 일 : 2012년 7월 1일 ● 상담시간 : 월~금 오전 10:00 ~ 오후 5:00 ● 도와드리 는 일 : 무료법률상담 및 소송대리, 소액사건심판법 적용 민사사건, 화해·독촉 및 조정사건